

함평나비대축제 기념 기획
 군립미술관 ‘풍경과 감정이입’ 전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어우러진
 전남도립미술관 ‘시의 정원’ 전
 담양문화재단 대나무 축제 기념
 담빛예술창고 ‘생태, 인류, 담양’ 전



나비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인근 함평군립미술관에 들러 전시를 감상하고 있다.



대나무축제를 기념해 기획한 ‘생태, 인류, 담양’ 전시 열리는 담양 담빛예술 창고.

“축제 즐겼다면 예술도 즐겨보세요”

‘축제장 옆 미술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전남 도내 곳곳에 다채로운 축제의 열기로 뜨겁다. 지난 4월 1일 개막한 순천만국제정원만 축제를 시작으로 함평 나비대축제, 보성 차엑스포, 담양 대나무 축제, 곡성 세계장미축제 등 저마다 차별화된 콘셉트로 전국의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축제장으로 인파가 몰려 들면서 인근의 크고 작은 명소들도 이들 관광객들의 발길을 때어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함평군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담양 담빛예술창고가 대표적이다. 이들 미술관은 축제장과 인접한 접근성과 축제와 연계한 특별기획전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함평군립미술관 ‘풍경과 감정이입’ 전
 함평나비대축제(4월28-5월7일)의 주요 무대인 함평나비엑스포공원내 자리한 함평군립미술관(관장 이태우)은 나비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필수코스인 인기다. 번잡한 행사장의 인파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위해 찾은 미술관은 한산한 분위기를 예상한 것과 달리 많은 관람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지난 2012년 지하 1층, 지상 2층의 3804㎡ 규모인 미술관에는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에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 20-30대 MZ세대들이 작품을 둘러 보며 예술의 향연을 즐기고 있었다. 평상시 1일 150여 명이었던 방문객이 축제기간에만 10배 이상인 2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나비축제의 최대수혜자로 떠올랐다.
 마침, 미술관은 이번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해 기획한 ‘풍경과 감정이입’ 전(4월28-7월2일)을 통해 전남 출신 청년작가 노은영, 박동근, 박인선, 윤준영 4명의 독특한 풍경화를 선보이고 있다. 저마다 색깔이 확연히 다른 풍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특히 미술관 2층 상설전시실에는 함평 출신인 한국화가 오당 안동숙(1922-2016)의 대표작과 평생에 걸쳐 수집한 수목, 유품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태우 함평군립미술관장은 “예전에는 나비축제 전시관과 체험 콘텐츠를 둘러 본 후 곧장 행사를 떠나는 관람객들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지역의 미술관에도 들러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방문객 가운데에는 축제를 계기로 군립미술관에 처음 오는 경우가 많아 예술과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미술관 ‘시의 정원’ 전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순천국제정원만 축제를 겨냥해 문화와 미술이 어우러진 ‘시의 정원:Poetic Paradise’ (오는 6월4일까지)를 전시하고 있다. 임철우의 소설 ‘백년여관’,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고정희의 시 ‘오매, 미친년 오네’, 에즈라 파운드의 시를 모티브로 안유리·이매리·임흥순·리밍웨이 등 4명의 작가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색다른 작품들을 내놓았다. 안유리 작가의 영상 작품 ‘스티스 심포니’는 유리하라 사다코,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마야 안젤루, 고정희라는 4명의 시인을 소환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인들은 히로시마 원폭, 나치와 소비에트, 흑인 민권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겪거나 목격 후, 그 심정을 담은 시를 발표한 이들이다.
 테이트 모던,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리밍웨이 작가의 작품 ‘여행자’ 연작은 구레

를 주제로 삼고 있다.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은 리밍웨이의 ‘편지 프로젝트’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여전히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음을 깨달은 작가가 1년 반 동안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편지를 쓴게 프로젝트의 씨앗이 됐다.
#담빛예술창고 ‘생태, 인류, 담양’ 전
 담양문화재단이 담양대나무축제(5월3-7일)를 기념해 기획한 ‘생태, 인류, 담양’ 전(5월28일까지)은 지역의 객관적인 특색을 탐구하기 위해 외부의 작가와 기획자가 담양을 제3의 시선으로 조망한 현장이다. 이를 위해 참여작가인 김유석, 김지수, 배성미, 원성원, 허수영은 담양을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설치, 미디어아트, 회화, 사진 등 저마다의 고유한 장르로 재해석했다.
 국내 예술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시류를 소개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확장, 지역과 교류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5·18문학상 분상
 김형수 ‘김남주 평전’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펼쳐지는 3일간의 시간을 다루는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우리의 70년 현대사의 굴곡을 그리고 있다. 웅장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만 서사 이면에는 무거움을 다소 무화시키는 ‘가벼움’이 드러워져 있다.

김남주 시인(1945-1994)은 ‘만인을 위해 싸울 때 나는 자유’라고 외쳤던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시인인 김형수 작가의 ‘김남주 평전’은 “그의 시에 빛을 준 한 사람으로서” “미친해 보이는 지상에 김남주라는 영혼이 다녀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쓴 책이다.

2023 5·18문학상 분상에 김형수의 ‘김남주 평전’과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 5·18문학상’을 공동 주관하는 5·18기념재단이사장(이사장 원순석)과 계간문학들, 한국작가회는 3일 분상과 신인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분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강형철)는 ‘김남주 평전’은 “시인 김남주의 생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광주 지역 정신의 위대한 계승이며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김남주의 생애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아버지의 생애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시선으로 포착해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5·18정신의 근원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서 각각 선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신인상은 소설 부문에 윤대정 ‘용서, 내 몫이 아니다’, 시 부문에 서나루 ‘공공고학저널’, 아동문학 부문에 이아름 ‘24시 목욕탕의 비밀’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래로 피어난 끝나지 않은 5월 이야기
 ‘오월어머니의 노래’ 18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 씨와 조선판스타에서 우승한 국악인 김산옥씨가 오월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예술극장 극장2에서 ‘오월어머니의 노래’를 펼친다. 공연은 ACC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연극배우 박정자 씨와 국악인 김산옥 씨 외에도 지역 성악가와 예술단체 회원들도 참여해 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월어머니들’에게 당시의 시간은 현대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자 있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오월어머니들이 역사의 산 증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자식, 남편, 또는 가족을 잃는 고통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큰 트라우마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월광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오월어머니 15명의 삶을 수필과 시의 형식으로 묶어 책자로 발간했으며 어머니 개개인의 사연을 노랫말로 담은 곡으로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오월어머니의 노래’ 음반을 제작해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해에는 서울, 부산, 광주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어머니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ACC가 지난해 수행한 고객만족도조사 공연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공연 관련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공연은 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ACC의 오월문화공간과 연계해 마련한 의미있는 행사”라며 “현대의 산



‘오월어머니의 노래’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오월어머니들. (ACC 제공)

중인인 오월어머니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오월의 가치를 보다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화·소나무... ‘피어나고 피어나다’

강남구 개인전,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활짝 핀 매화가 반긴다.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미세한 꽃등이 매화나무에 달려 있는 것 같다. 흑여 바람이 불면 화려르 꽃잎이 떨어질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해진다.
 서양화가 강남구의 51회 개인전이 열리는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1층. 작가가 최근에 연작중인 매화와 소나무는 실제의 자연을 옮겨온 것처럼 정밀하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먹음직스럽던 ‘석류’ 그림이 매화에 겹쳐 눈앞에 소환된다.
 전시장에 내걸린 모두 29점의 작품은 같은 듯 다른 듯 저마다 매혹적인 분위기를 피워낸다. 전시 주제를 ‘피어나고 피어나다’로 정한 이유가 대략 가능성이 된다.
 봄날 산천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 산하 어디에나 우직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는 기특하면서도 정겹다. 옛 선비들은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고 화신을 전달하는 매화와 모진 풍상에도 의

연함을 잃지 않는 소나무에서 우리네 심성과 근기를 느꼈다.
 강 작가의 매화와 소나무는 고전적인 매화와 소나무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굵고 화려하며 몽환적이다. 색채와 리듬감이 넘쳐, 거칠거나 딱딱해진 마음을 무심결에 어루만져 준다. 사실적이되 사실을 뛰어넘는 아우라가 배어나온다. 대상의 전경을 조망하는 대신 후경은 몽환적으로 처리한 기법이 주는 효과다.
 특히 투박한 소나무 껍질과 바늘처럼 날카로운 솔잎, 배경으로 자리잡은 매화꽃은 시시각각 변하는 감흥적 인상과 자연에 대한 통찰이 번뜩인다. 강 작가는 “소나무와 매화는 우리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끼가 낀 거친 나무의 표피에서 세월의 풍파와 연륜을, 꽃잎이 선사하는 향기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강 작가는 다수의 국내 아트페어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개관초대전 외 단체전 및 초



‘공간-생명력’

대전 700여회의 전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무등미술대전 운영위원회 다수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슈만을 노래하다’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월요콘서트 두번째 무대로 ‘낭만의 시, 슈만을 노래하다’가 펼쳐진다. 오는 8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이번 무대는 지난 2022년 창단한 더 클래식(대표 이지은)이 무대에 나서며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과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여자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 두 개의 사랑 이야기를 해설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성악을 전공한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더 클래식은 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윤한나 광신대 음악학부 교수를 비롯해 신은선·이지현·이예지가, 메조소프라노 김하늘, 테너 김홍용, 바리톤 김경천·김치영·박성훈이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이지은이 해설과 함께 연주한다. 전석 5000원. 공연 관람은 사전 전화 예약 및 현장 예매로 운영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회 취약계층 대상 10석의 나눔 좌석을 제공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